

# 중생제도 불법 찬탄하는 몸짓 공양

월 2회 연재

## 상징으로 보는 불교문화

### 춤



최승희가 창작한 보살춤은 불보살의 자비행을 묘사한 작품. 최승희의 제자 김백봉의 공연 장면.

## 영산재춤 무대무용에 영향

**바라춤** 고통받는 중생 제도하는 춤

**승무** 불교서 출발한 한국춤의 백미

**보살춤** 보현행원 형상화...최승희 안무

옛 선사들은 참구하던 회두를 깨치고 깨달음의 열매에 빠지는 순간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고 전한다. 우주와 진동시키는 즐거운 춤이었을 것이다. 원효스님이 신라의 하늘을 어깨에 걸머지고 명실당실 추었다는 무애무 또한 자유를 일깨우는 아름다운 몸짓이었을 것이다. 그런가 하면 설산에서 고행하는 고타마시타르타 태자 앞에 나타나 온갖 고타를 부리며 추어대는 마구니들의 춤은 춤이 아니다. 태자에게는 한낱 허적비의 장난질에 불과 했기 때문이다.

불교에 있어서의 춤은 공양이다. 부처님의 장엄한 회상과 법을 찬탄하는 공양이기도 하고 인간의 죄업을 사해내는 간절한 발원의 공양이기도 하다. 그래서 불교의 춤은 언제나 위의를 느끼게 하는 장엄미가 있다. 소리(법패)와 무용의 종합 의식인 영산재가 대표적인 불교춤의 보이다. 영산재의 춤들은 오늘날 무대무용으로까지 자리를 넓힌 한국춤의 원류를 이루고 있다. 불교의 춤은 한낱 몸짓을 떠난 자리에서 이미 인간의 애욕과 진리의 법계를 돌 아나게

융합하는 불상의 표출이기 때문이다.

### 영산재의 춤들

**△바라춤:** 동으로 만든 바라를 들고 추는 춤이다. 의상은 장삼과 가사처럼 그대로이며 비교적 빠른 장단에 맞춰 춘다. 혼자 춤출 때는 외바라 또는 공바라라 하며, 불이 춤출 때는 겹바라, 빛이 추면 쌍바라 라고 부른다. 바라춤의 종류는 7가지다. 천수경의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열송하며 박자를 넣은 천수바라, 네 다리를 엮어서 추는 사다리나바라, 아뢰괴불단 아래서 두 사람이 서로 비켜 오가며 추는 명바라, 내림계바라, 관육쇠바라, 회외계바라, 요잡바라 등이다. 바라춤은 태평, 북, 목탁, 호적 등 삼현육각의 화려한 악기 소리에 맞춰 추게 된다. 고통받는 육도 중생을 제도하는 춤이다. 영산재의 한 부분인 바라춤은 이제 일반 무대에서도 공연될만치 대중성을 확보하고 있다.

**△나비춤:** 영산재의 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춤이 바로 나비춤이다. 승포드록 하얀 장삼(흰 장삼을 6층 장삼이라 한다)과 땅에 깔릴듯 늘어뜨린 유수기사, 그리고 탐모양의 고

춤은 '정중동'의 섬세한 동작이 독특한 민속춤이다. 사진은 한영숙씨를 이은 O매주의 춤사위.

깔과 손에 든 작약과 모란 꽃 봉우리. 이러한 장엄불을 만으로도 나비춤은 아름답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그런데 춤사위들도 사뭇사뭇이 어진다. 이 여성적 춤도 한사람이 추면 향나비춤으로, 두사람이 추면 쌍나비춤, 다섯 사람이 춤출 때는 오향나비춤이라 각각 달리 불린다. 나비춤은 종류가 16가지나 된다.

**△타주춤:** 영산재 가운데 식단작법에서만 행해지는 춤이다. 불법승 상보와 시주자 수주자, 시주를 들은 다 시 생각하며 공양을 찬탄하는 의미로 갖는다. 법복을 입은 두 스님이 타주체를 하나씩 든 채로 1m 높이의 팔정도불을 뒤로 한 채 앉아 오다가 경쇠소리와 어장스님의 태평과 영봉소리에 일어나 서로 마주보고 춤을 춘다.

**△법고춤:** 육중제도를 위한 춤이다. 천수바라춤과 나비춤이 끝난 후 요잡바라를 끝머리와 식당작법 때 법고춤이 들어간다. 보통 한쪽 측면에서 북을 울리고 그 반대편에서는

어장스님이 태평 장단을 친다. 삼현육각과 호적이 혼합된 느린동작에서 시작해 태평 장단에 맞춰 점점 빨라진다. 요즘 무대에 올려지는 3고무, 5고무 등 북춤도 이 법고춤에서 비롯됐다.

### 승무

고도의 미적 구조를 갖춘 승무의 가람에 대한 설은 다양하다. 지족선사를 파계시키기 위해 왕진이 저를 추었다는 설과 상좌승의 모습을 동자승이 본떠서 추었다는 설, 육관대사의 제자 성진이 8인녀를 만나 노니는 내용의 구운몽을 본으로 추어졌다는 설 등이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 『법화경』에 나오는 거삼존자의 얘기를 춤으로 만든 것이라는 설이나 탁발승이 포교를 위해 여러 시냇가 모를 목적으로 춤을 춘 것에서 비롯했다는 설도 있다.

본은 가사에 장삼을 걸치고 백옥같은 고깔을 쓰고 유난히 코가 굽은 버선을 신고 추는 승무는 열불, 도드

리, 타령, 굿거리, 자진모리 등의 장단 변화를 따라 펼쳐지는 일곱 마당의 춤이다.

불교에서 출발, 민속무로 성장해 무대무용예술로 완성된 승무는 1969년 중요무형문화재 제 27호로 지정됐다. 1938년 한성군이 승무의 사위와 가락을 집대성 했으며 그 이전에는 광대패, 관소리꾼은 물론 권번무용의 기본으로 추어졌다.

한성군의 집대성 이후 그의 발인 한영숙이 기능을 보유했게 됐으며 이대주씨에게 사위를 전했다. 김천송, 김선영, 최승희, 조태일도 한성군의 법통을 이었다. 1987년 기능보유자로 선정된 이대방은 이대조 박영규 등에 사사받은 호남승무의 명인, 이대방의 승무는 임이포씨들이 맥을 잇고 있다.

### 가사호집(假坐胡蝶)

한성준으로부터 승무를 전수받은 조태일이 1933년에 내놓은 현대화된 승무다. 처음의 이름은 '승무의 인상'이었다. 조태일이 승무를 배우고 추어 받은 느낌을 또다른 춤사위로 표현한 것으로 현대적 예술의식이 스며든 '승무의 새로운 해석'인 셈이다.

첫 공연 이후 조태일은 세계무대를 누비며 이 춤을 소개했다. 제자 송병에게로 대를 물린 가사호집은 다시 국수호와 김문숙에게로 전해졌다.

### 무애무

원효스님이 추었다는 유명한 춤이다. 무애(無礙)란 걸림이 없다는 뜻이다. 원효스님은 격식이나 형상을 떠난 곳에 진리가 있음을 깨닫고 무애가를 부르고 무애춤을 추며 경주의 거리를 떠돌아 다녔다 한다. 그러나 무애가나 무애무는 그 내용과 형식이 전해지지 않는다.

### 보살춤

일제때 세계적인 무용가로 이름을 날렸던 최승희가 안무한 불교춤이다. 언제부터 추어졌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다. 언뜻 보기에는 관음보살의 자비행을 표현하고 있는 듯하지만 보현보살의 행원을 형상화 했다고 보는 설이 정설.

움직임이 없는 가운데 움직이는 이른바 정중동(靜中動)의 기개가 돋보이는 춤이다. 춤은 5분에서 6분정도 짜여져 있다.

최승희의 제자 김백봉씨가 보살춤을 이었다.

일연대 기자 (yilim@buddhapis.com)



법고춤. 매우 강렬한 동작이 특징.



나비춤. 육도중생을 제도하는 의미.



나비춤. 의상과 동작이 매우 아름답다.



타주춤. 식당작법에서 안 시 연된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화제의 신간**

李道源 求道記  
신국문/408면 27,750원

## 그냥 갈수 없는길

“머릿저장 공간을 찾아 복을 비는 아내를 보고 불교를 알고 싶었다.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내의 신앙생활을 심판하기 위해서였다. 그렇게 불교를 접한 나는 진리 앞에 합장하게 되었고, 경건과 여러 선지식을 통하여 자연과 인생, 그리고 종교에 대한 진실함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는 인생이 무엇인지, 종교가 무엇인지를 알고픈 이들에게 그 진실한 얘기들을 들려주고 싶었다.” - 지은이의 말 중에서

이 책은 불교와 처음 인연한 이야기에서부터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을 마치 그림으로 그려내듯 진솔하게 써내려간 이도원의 자전적 구도기로, 책에 담긴 글들을 읽다보면 그냥 갈수 없는길,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은이 이도원(李道源)은 1945년 경남 진수영으로 1975년 철담 스님의 명상학을 읽고 발심, 1980년 명사에서 상운지호(空雲智號) 스님께 수계, 재가불자로서 구도의 길을 걷고 있다. 부산불교고등학교 초대 이사장, 부산불교고등학교장인한희지도위원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는 전통개량한복 '고운 우리 옷'의 대표로 경남 천성산 대적선원(大寂禪院)선도회장의 소임을 맡아 그 빛을 나눠가고 있다.

대표전화 : 420-3200  
팩시밀리 : 420-3400

## 여성고민의 원인과 향요법

항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밀끔하...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항비는(자연향) 테크놀로지 엔솔이라는 정유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지방질을 분해시킵니다.

### 항비 香妃!

이 항비를 신명향(배꼽)에 착용하면 방항작용시공의 결함이 신경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작용에 전이하여 각종 효과를 얻는다.

항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유독을 과억제제를 하므로 비특히 항비는 프로도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로도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항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골관절통, 기미, 피부 및 탈색현상 등에 몸이 자신도 모르게 좋은 항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항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항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침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증상(○) 하십시오.**

-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두통이 있거나 빈번이 있다
- 불면증이 자주 있다
-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 기미가 있다
- 생각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무릎통증이 있거나 뻣음이 있다
- 생리주기가 정상이 아니다
-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생리때 발열이 있고 식욕이 없다
-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가슴이 답답하고 결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살이 있다
- 전반적으로 활력순환이 인체내로 잘 안된다
- 목이 배고르거나 눈이 침침하다
- 변비가 심한 편이다
- 질노니 감상신으로 고통을 당한다

2가지 이상 해당되는 분은 즉시 전화하세요.

고려물산 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